

권두언

인류는 핵확산, 온난화, 금융혼란, 건강불량 등 전세계적인 규모의 위기에 직면하여 쇠퇴나 아니면 진화냐의 분수령에 처해 있다. 근본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규모의 환경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생겨난 국가와 민족 간의 원한을 승화시키고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굳건한 평화적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.

동북아에는 20세기 전쟁의 잔혹한 잔영이 여전히 농후한 색채로 남아있고,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반감과 불신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. 그러므로 이 지역이 인류 미래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.

역사 속에서 피해를 주었던 일본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, 피해를 입었던 핵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, 피해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,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, 및

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, 핵대국인 미국, 소련연방 등에게 화합하고 우의적이고 양보하는 평화사업을 만들 것과,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의 발원지를 건설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니,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. 만약 이 사업을 전개시켜 나간다면, 분명히 대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지역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.

이 명언집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지극한 보배로, 중국 경전 중에서 오늘날의 평화·환경·건강의 주제와 연관된 명언들을 모았으며, 중국어, 일본어, 한국어, 영어 네 종류의 언어로 편집되었다.

이 책의 발행을 계기로 신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,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슬기로운 지혜에 의해 탄생되는 논의 내용을 세계로 확대하고, 「대립문화」로부터 「공생문화」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이 책은 학원출판사와 각국 학자들의 협조와 지지에 힘입어 출판되게 되었다.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.

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

이사장 小松昭夫